

# 새내기 소리꾼들 '오월 광주' 가슴 깊은 열창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창작판소리 '운상원가(歌)' 공개 오디션장의 모습. <광산문화예술회관 제공>

## 창작판소리 '운상원가' 청년판소리꾼 공개 오디션 현장

“이때는 어느 댕고/신년 벽두 과도정부--이때여 광주시내 병원이란 병원은/광주의 전 시민이 도청으로/계엄군 거동봐라 관광호텔 전일빌딩/계엄군 거동봐라 계엄군 거동봐라...”

지난 21일 광산문화예술회관 강당 창작판소리 '운상원가(歌)'의 청년판소리꾼 공개모집 오디션장.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 국악경연대회, 국악제 수상자, 프로젝트 그룹 단원 등 쟁쟁한 실력을 내세운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다.

이 날 오디션에는 3명의 여성참가자와 2명의 남성참가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고요한 강당 안 4명의 심사위원 앞에 마주서서 '심청가', '춘향가' 등 저마다 준비한 판소리 대목을 선보였다.

이와 각자의 목소리로 '오월 광주' 중 한 대목을 열창했다. 준비한 판소리 대목을 부를 때에는 다르게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오월 광주'를 부르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손에 땀이 쥐어졌다.

'오월 광주'는 민중문화운동 1세대인 임진택이 5·18 민중항쟁 10주년이 되던 1990년, 도청을 사수하다 장렬히 산화한 벗 운상원을 그리며 만든 창작판소리다. 1980년 5월18일 공수부대 투입부터 5월27일 시민군의 도청사수까지 열흘간의 사건을 총체 단락으로 구성했다.

이 날 오디션에 참가한 안지영(여·26)씨는 “판소리 프로젝트 그룹 ‘여유’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디션에 참가해 팀원들 없이 무대에 서니 더욱 떨린다”며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준비해 연습한 만큼 자신있게 보여준 것 같지만 오월 광주를 부를 때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긴장한 탓에 심사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물어봤을 때 머리 속이 하얘져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니 다들 웃으시더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함승우(25)씨는 “오월 광주’의 한 대목을 부른 후 “광주 5·18민중문화운동은 알고 있었지만 운상원이라는 인물은 처음 접한다”며 “꼭 ‘운상원가’에 참여해 그의 삶과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겪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운상원가’는 80년 5월 시

쟁쟁한 실력 갖춘 남녀 5명 참가  
11월 28일 시연 12월 21일 공연

‘오월 광주’ 만든 임진택씨 제작  
“5명 모두 무대에 세우고 싶어”



‘운상원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진택씨.

민중 대변인으로 활동한 운상원 열사와 항쟁에 참여한 광주시민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그린 작품이다.

30살에 세상을 떠난 운상원을 좀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20~35세 젊은 소리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 판소리꾼은 오는 11월 28일 ‘운상원가’의 핵심 부분을 선보이는 ‘눈대목’ 시연회와 12월 21일 본 공연에 출연한다.

판소리 작업은 운상원의 오랜 벗 임진택이 맡았다. 민중문화운동 1세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TBC TV PD를 지내기도 했던 임씨는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소리내력’, ‘똥바다’ 등을 만든 인물이다.

임씨는 “2~3년 전 운상원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월 광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5월 광주’는 1990년에 창작한 판소리예요. 이 작품의 원전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죠. ‘5월 광주’는 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열흘간의 투쟁과 해방의 서사적 기록입니다. 인물이 주인공이 아닌 사건이 주인공이지요. 이 작품의 마지막에도 운상원이 등장해요.”

그는 이어 5·18 광주항쟁, 운상원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설명했다.

“저는 1980년 5월 당시 TBC방송국의 PD였어요. 1981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획책한 방송통폐합정책에 따라 KBS로 강제 이직했죠. 그때 청와대 지시로 KBS가 주도해 ‘국풍 81’이라는 행사가 계획됐어요. 1980년 광주학살의 피남새를 지우려는 거짓 호국 축제요. 하필 그때 ‘국풍 81’을 맡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청와대 지시를 거부하고 뛰쳐나와 방송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운상원에 대한 우정과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광주를 위해 싸우는 못했을 망정 광주정신을 더럽힐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임씨는 1979년 12월 31일 운상원을 만났던 날을 정확히 기억하며 운상원이 자신의 노래를 유일하게 완창한 벗이라고 설명했다.

“오디션에서 쟁쟁한 실력을 갖춘 이들을 만나니 모두 무대에 세우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소리꾼 한 명이 등장하는 무대가 아닌 여러 명의 소리꾼이 등장하는 임제장 형식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이번 운상원가에서는 운상원의 삶뿐 아니라 박기순과의 만남, 헤어짐, 영혼결혼식 그리고 들불야학 출신 열사 7명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자화상·풍경·인물화...

## 50년 작품세계 오롯이

서양화가 이근표 50년전

10월 2일까지 조각장식박물관

고개를 비스듬히 숙인 한 청년이 상념 가득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다. 청년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고 그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화폭에 담겼다. ‘자화상’은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관람객들이 자연스레 자신을 투영해보는 장치이기도 하다.

서양화가 이근표씨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는 말 그대로 ‘꼭 찻다’. 50년(1968~2017) 화업을 갈무리하는 전시회인 왜 그리지 않았는가. 초기 자화상부터 근작 풍경화와 인물화까지, 단 한 차례도 한 눈 팔지 않고 묵묵히 그림에만 매진해온 그의 작품 세계가 오롯이 담긴 전시회다. 서양화가 이근표 작가가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은 “열심히 그리면 좋은 화가가 되겠다”며 격려를 해줬고 그 말은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최근작들은 풍경과 정물들이다. 이국의 감성을 가미한 목포항 풍경은 마음에 늘 품었던 유토피아적 꿈을 더해 밝은 색채로 그렸다. 광주가 형성되기 전 태고적 무등산의 모습을 담은 반추상 작품도 눈에 띈다. 세월호를 소재로 한 대형 자화상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파스텔 인물화도 인상적이다.

이 작가는 지난해부터 작업한 ‘얼굴’ 시리즈가 앞으로 평생 작업 소재가 될 거라고 했다. 15개 칸에 담긴 14개 얼굴은 작가의 것일 수도, 그림을 바라보는 당신의 것일 수도 있는 ‘얼굴’이다. 가운데 해골은 미래의 자화상이다. 바로 옆에 걸린 또 다른 ‘얼굴’ 시리즈는 오랜 드로잉의 내공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하얀 캔버스 바탕을 그대로 두고, 외곽선을 따라가며 얼굴을 완



‘얼굴’

관 내 진한미술관에서 ‘이근표 50년전’(10월2일까지)을 열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누드 크로키다. 이 작가는 50년 동안 일주일에 세시간씩 누드 크로키를 그렸다. 모델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한 모델을 8시간 동안 그린 적도 있다. 199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토요일에 만난 사람’은 그의 든든한 동반자다.

“누드 크로키는 선을 통한 사유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의 감각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렵지요. 난관에 부딪힐 땐 추사 선생의 글씨를 임시하곤 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두 명의 스승을 만난다. 입시를 앞두고 만난 배동신 선생과 조선대 은사였던 임적선 선생이다. 1971년 자화상을 본 임 선생

성했다. 카뒤와 쇼펜하우어의 얼굴도 보인다.

“젊은 날부터 자화상을 꾸준히 그려왔어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늘 공부하고 탐구해도 부족해요. 사람의 얼굴은 많은 걸 담고 있죠. 생로병사, 희로애락 등 인간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15개 칸 속에 그린 얼굴은 지금까지 그렸던 자화상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어요. 작품 속 얼굴을 보며 관객들은 ‘나’를 떠올리기도 하더군요. 80호 대작들인데 내 평생의 화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려야지요.”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한국드로잉 50년전, 광주미술 어제와 오늘 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2-00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